



참사람 36.5°C

Vol. 44 | 2024년 9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4년 9월 3일 화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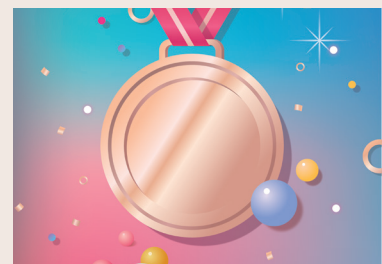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Cover Story

2024년 9월,
민족대명절 추석에 있는 달입니다.
밤하늘에 차오르는 저 보름달처럼,
참사람 36.5도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04

참사람을 말하다

**패럴림픽이 우리에게 전하는
찰나의 순간에 대하여**

홍석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장/
한국특수체육학회 이사



08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새내기 교사와
부장 교사의 모닝커피**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은실



12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알쏭달쏭
매년 추석마다 헛갈리는
차례예절 완전정복!**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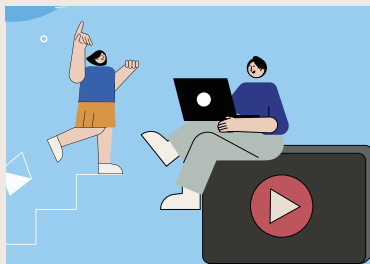
재단 소식
**“글로벌 리더십을 말하다!”
체.인.지 한일교류
현장 스케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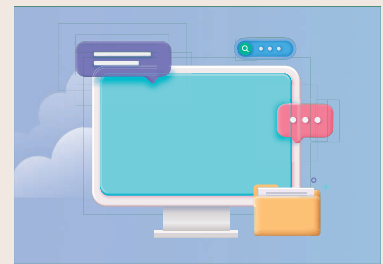
책으로, 참사람으로
「바퀴 빌라의 여름방학」 독서편지
여름방학을 싫어하는 이나에게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이OO

**‘바퀴 빌라의 여름방학’은
어떤 책?**
글 _ 신운선 작가




15

재단 소식
**“너희의 일상이 궁금해!”
요즘 뭐해? 영상 공모전**



18

재단 소식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안내**



패럴림픽이
우리에게 전하는
찰나의 순간에
대하여



홍석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장/한국특수체육학회 이사

대한민국의 휠체어 육상 선수이자 대한민국 최초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前선수위원.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육상 100m, 200m 금메달과 400m 은메달을 획득해 주목받았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400m에서는 47.67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후로도 10년간 현역 선수로 활동하며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의 개수만 30여 개에 달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IPC 선수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으며 체육훈장 맹호장과 청룡장을 수상했다.



패럴림픽, 시작과 변화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같이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인의 축제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뜨거운 영감을 전달한다. 폭발적인 감정선, 다양한 표정과 몸짓, 뜨거운 땀방울... 선수들이 대회에 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관객인 우리 또한 일상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며 이입하게 된다.

패럴림픽은 지금까지 몇 번의 주요한 변곡점을 가졌다. 1960년 제1회 로마를 시작으로 1988년 서울 패럴림픽, 그리고 2024년 파리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환경, 사회 및 문화, 세대 등이 변화를 거듭하며 지금의 모습이 구축되었다. 1988년 이전까지만 해도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지는 달랐으나, 서울에서의 대회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하나의 도시에서 같이 개최하는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2024년 파리에서는 마스코트, 휘장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찰나의 순간이 나에게 전한 것

누구나 강렬한 찰나의 순간을 경험한다. 스스로도 눈치챌 틈 없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잠재의식 속에서 조금씩 피어올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는 동시에, 찰나였던 순간은 영원한 기억으로 각인된다.

13세 어린 아이에게 각인된 그 순간은, 나의 미래를 전부 바꾸

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패럴림픽의 가장 큰 변곡점인 1988년 서울 패럴림픽(당시 명칭 : 장애자올림픽) 개막식 전후에 진행되는 마스게임에 참여했었다. 그 순간 체험했던 경험들은 패럴림픽에 동경을 품게 했다. 특히 현장에서 마주했던 '휠체어 육상'은 스쳐 지나듯 짧은 순간의 기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그 곳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배들을 바라보며 뚜렷한 목표의식을 품었고, 그렇게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이 나의 첫 무대가 되었다. 대회를 준비하고 치르는 동안 기대감 그리고 긴장감이 매일 교차되었고, 인고의 시간 끝에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할 수 있었다.

대회 현장에서 선수로서 경험한 패럴림픽은 마스크를 통해 만났던 모습보다 훨씬 뜨겁고, 대단했으며, 경탄할 만한 축제였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에 대한 배척, 그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좋은 기록과 멋진 추억으로 아테네 패럴림픽을 마무리하고 4년 뒤, 2008년 참가한 베이징 패럴림픽은 내 선수시절을 대표할 만한 기록(400m 세계신기록 수립)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성을 품게 해준 대회였다.

우리는 왜 패럴림픽에 열광하나

패럴림픽이 전세계 마스크의 주목을 받았던 대회는 2012년 런던 패럴림픽으로, '하나된 우리'라는 대회 슬로건에 걸맞은 뜨거운 감동을 전달했다. 사실 개최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 국민들은 이 대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막이 오름과 동시에 별 기대감 없이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들은 올림



픽과는 또 다른, 패럴림픽 고유의 감동과 열정을 만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다. 이 열기는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우리는 왜 열광했던 것일까? 무엇보다 신체의 한계를 가진 선수가, 그 한계에 경건히 맞서며 오랜 기간 단련해왔던 기량을 펼치는 감동적인 과정을 통해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일부 매스컴에서는 패럴림픽을 마치 올림픽의 번외경기처럼 표현하고는 하는데, 현장의 열기를 만난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선수들의 붉은 땀방울, 귀가 먹먹해지는 관중들의 함성, 장내 아나운서의 목이 찢어질 듯 고조된 중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 강렬한 경험에 매료될 것이다.

필자 또한 2004년 신들의 성지 아테네에서,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패럴림픽 주경기장 나오퉈를 가득 채운 관중들 속에서 세계신기록 수립과 동시에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한 순간 경기장을 뒤흔들던 함성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공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관객이 가득 찬 올림픽·패럴림픽 주경기장에 자랑스러운 애국가가 울려 퍼질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선수로서 최고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간 바쁜 일상에서 고단했던 일을 마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 아래 고개를 들었을 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가득 메운 수많은 별들이 나를 반기듯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들 또한 그러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공존 :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패럴림픽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감상을 가질 것이다. ‘장애인 스포츠’에서 ‘장애인’보다도 ‘스포츠’에 방점을 두어 경기 내용에 집중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장애인’에 관심을 두고 선수들이 짊어진 무게와 이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날 과학기술의 총체를 만나고 관찰하는 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재활공학, 스포츠과학, 소재공학, 역학, 공기역학, 기계공학, 의학의 산물이 패럴림픽에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해당 장비와 기술이 선수의 장애를 얼마나 보완하고 있으며 어떤 경기로 승화시켰는지 말이다. 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적용되는 방식과 사회에 헌신하는 방안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는 장애가 상관이 없다고 여기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나이가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패럴림픽은 이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나고 감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패럴림픽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패럴림픽을 바라보든, 이 경기가 그 자체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보라빛 향연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전 세계인의 15%가 장애인이며 모두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WeThe15’ 글로벌 캠페인으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공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또한 과거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었으나 이제는 같은 공간 안에 공존하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패럴림픽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스포츠 경기가 매스컴 등에서 자주 노출되지도 않거니와, 보인다 하더라도 경기 내용 혹은 스포츠 본연의 가치보다 장애에만 초점을 두고 조명하는 사례가 많다. 전 세계가 공존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서로 유리된 느낌이다.

지난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 일본이 올림픽보다도 패럴림픽 준비에 공을 들인다는 소식이 해외 매스컴을 통해 전달된 적이 있다.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패럴림픽을 위한 준비가 적절했다면 당연하게도 올림픽 준비 또한 완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쿄 시내를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리모델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누구나 불편없이 한 공간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눈치를 보지 않는 도시, 누구나 모든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 온 것이다.

Integration과 Inclusion


‘2024 Paris’는 대회 상징인 앰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디자인과 컨셉으로 통일하여 양 대회를 준비했다. 패럴림픽이 올림픽의 부속물처럼 여겼던 예전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여전히 Integration, 즉 ‘사회통합’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합에는 분리가 선행이자 필연이다. 먼저 구분 짓게 된다는 이야기다. 혹은, ‘우리’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우리’를 만들어 가둔 후 통합이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추세는 다름 아닌 Inclusion, 바로 ‘포괄’이다. 처음부터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동안 패럴림픽이 추구했던 용기(Courage), 결단력(Determination), 영감(Inspiration), 평등(Equality)은 선수들의 삶을 대표하는 가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 발휘하는 강인함이 우리 사회에 뚜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스포츠 안에서는 어떤 장애, 피부색, 국가나 사회적 이념도 대치되지 않으며 오로지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건강한 평등만이 존재한다. 이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패럴림픽을 통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만나고,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인류애를 만나며, 스포츠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이들의 뜨거운 삶을 만남으로서 진정한 공존이란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강렬한 메시지를 얻는다. 8월 28일 개막한 ‘2024 Paris’의 패럴림픽은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환희와 열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새내기 교사와 부장 교사의 모닝커피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은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내기 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매일 학교에 한두 시간씩 일찍 출근을 했다. 학교 일이 내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교사가 되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과 달리 학교에는 해야 할 행정 업무가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그 행정 업무는 내게 너무 어려웠다.

나는 남들보다 한두 시간씩 시간을 더 쏟아야만 주어진 일을 간신히 해낼 수 있었다. 일곱 시에 교무실로 출근을 하면, 나보다 먼저 출근하신 교무 부장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모니터 뒤에서 얼굴을 내밀며 인사를 하셨다.

“왔어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나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노란 커피믹스를 뜯어 종이컵에 쏟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커피믹스 껍질로 커피를 휘휘 저으며 부장님께 여쭙었다.

“부장님도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러면 부장님은 특유의 경상도 억양으로 “네, 좋지요.”라고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20대 새내기 교사였던 나는 50대 부장님과 같이 커피를 마시며 어제 본 야구 이야기, 부장님이 추진하시는 프로젝트 이야기, 부장님이 신규 교사였을 때 실수한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조용히 각자의 일을 했다.

나는 매일 커피를 타며 “한 잔 드시겠어요?”라고 물었고, 부장님은 매번 “네, 좋지요.”라고 똑같이 대답하셨다.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으셨다. 그렇게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용한 아침 교무실에 부장님과 나의 모닝커피 시간이 쌓여갔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부장님께 어려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가졌던 환상과 현실에 대해 푸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교사의 길을 걸어오신 부장님께 들은 조언 덕분에 나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교사와 대화를 하다가 놀란 적이 있었다.

“교무실 커피믹스는 이제 조금만 신청할까 봐. 마시는 사람도 거의 없고.”

“교무부장님이 커피믹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거의 매일 먹고요.”

“교무부장님? 부장님 카페인 몸에 안 맞으셔서 커피 안 드셔. 아메리카노도 안 드시고 홍차, 녹차 같은 것도 안 드시고. 커피믹스도 당연히 안 드시지. 오래됐어.”

그랬다. 부장님은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료를 오래전에 끊으신 분이셨다. 그런데 새내기 교사가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겠냐고 물어보니 매일매일 같이 한 잔씩 마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단순하게도 부장님이 커피믹스를 좋아하셔서 매일 모닝커피를 드시는 줄 알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정도 있으신 부장님이 일찍 출근을 하신 건, 당신의 업무가 많아 일을 하기 위해서였을 텐데, 부장님은 그 소중한 아침 시간을 까마득한 후배 교사에게 할애해 주신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주스를 한 잔 사서 출근했다. 부장님께 커피 대신 주스를 내밀며 왜 그동안 좋아하시지도 않는 커피를 그렇게 드셨냐고 여쭙자 부장님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다.

“김선생도 나중에 내 나이 되어서 새내기 교사 봐봐. 얼마나 기특하고 안쓰러운지. 그때 잘 해주라고.”

시간이 흘러 나는 40대의 교사가 되었지만 그때 부장님의 당부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가끔 새내기 교사들이 발령을 받아 학교로 오지만, 나는 내 일을 하기에 바빠 후배 교사들을 챙겨주지 못한다. 새내기 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한 마음도 들지만, 내가 좋은 교사인지 아직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지금, 후배 교사들 앞에 서기가 쑥스럽기도 하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MZ세대 교사들에게 괜히 불편함을 줄까 봐 물려나 있는 마음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새내기 교사 중에도 도움이 간절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그때 부장님은 어떻게 스무 살 넘게 어린 후배 교사에게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셔서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셨을까. 곧 부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가을 야구가 시작된다.

가을만 되면 나는 부장님과 신나게 이야기하던 새내기 교사 시절의 그 아침 교무실이 떠오른다.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교육 봉사를 하고 계신 부장님을 조만간 찾아뵙고 나는 또 그 시절로 돌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싶다. 선배 교사의 무게가 무겁다고 투정도 좀 부리고 싶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후배 교사들에게도 참교사의 길을 보여주시는 부장님이 오늘따라 더욱 그리다.

「바퀴 빌라의 여름방학」 독서편지

여름방학을
싫어하는

이
나
에
게

글 _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이OO



안녕 이나야? 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너의 이야기를 읽은, 너와 비슷한 시간을 보냈던 한 아이야. 정말 잘 읽었어. 읽고 보니 네가 말하기 힘들었을 이야기더라. 그래서 너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많은 생각을 했어. 나의 편지로 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많이 고민 중이야. 네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줄지 가능성이 되지 않거든. 그래도 네가 용기 내서 이야기해 줬으니 나도 솔직하게 털어놓을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 지금의 너와 같은 나이였지.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 편부모 가정 아이를 놀리곤 했어. 그때의 나는 편부모 가정이었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주말에 무엇을 했냐는 친구들의 물음에 “엄마, 아با와 같이 놀이공원에 다녀왔어.”라고 해버린 거야. 어리석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 못했던 나이였어. 너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얼마 뒤, 그 거짓말은 들통나 버렸어.

어떤 친구가 선생님께 나의 주말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엄마’라는 이야기에 가우뚱했던 거야.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나의 엄마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한순간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아마 너도 그랬겠지? 그래서 난 한 학기 내내 다른 편부모 가정 친구들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너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안타깝아. 책을 읽으면서 자꾸 멈칫할 정도로 말이야.

네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 빌메르와 너의 파라다이스인 '남쪽'에서 네가 마틸데와 레이네에게 빌메르의 가정사를 말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 6학년 때, 내가 했던 거짓말이 들키던 순간이 생각났거든. 하지만 너도 이제는 깨달았길 바라. 거짓말로는 진심도, 진실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아야. 나는 너무 뒤늦게 깨달았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깨달았길 바랄게.

나는 너의 모습에서 나를 봤어. 그저 거짓말을 하는 내가 아니라, 주변 아이들과 다른 나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나'를 말아야. 그래서 하나 더 깨달을 수 있었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나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했어. 너는 어때? 아직도 주변 친구들과 환경이 달라서 두렵니? 아직도 그렇게 두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풍경들을 봐. 꽃도, 나무도 모두 똑같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다 조화롭고 아름답잖아. 너도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가슴 펴고 당당히 살아갈길 바라. 그 누구도 너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으니 말이야. 언제나 응원할게!



'바퀴벌라의 여름방학'은 어떤 책?

최악의 여름방학을 최고의 여름방학으로 만들기

국민의 경제수준이 좋아지고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가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결핍감과 수치심 등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 이 작품의 이나도 그런 아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전학을 다섯 번이나 다니느라 친구가 마땅하지 않고 엄마는 실직 상태인데다가 무기력하여 이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반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휴가 갈 곳을 자랑하며 들떠 있지만 이나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 이나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기 싫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남쪽의 리조트로 휴가를 간다며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혹은 어두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꿈을 현실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나는 여름방학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 소설은 열두 살 이나의 우정과 첫사랑, 인싸와 아싸, 소셜 미디어에서의 거짓과 진실, 빈부격차의 갈등 등을 통해 현대 청소년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지금 보다 좀 더 나은 현실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작품이다.



신은선 작가

작품으로 『안녕이라고 말할 때』, 『아홉 살의 두발자전거』,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 『해피 버스데이 투미』, 『두 번째 달, 블루문』, 『고전을 부탁해 1, 2』, 『엄마가 고른 한 권의 그림책』 등이 있습니다. 제12회 마해송문학상과 2019년 아르코문학창작지원금 장편동화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알 쏙 달 쏙

매년 추석마다 헛갈리는 차례 예절

완전정복!

*

*

9월,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과 함께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우리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명절마다 어떻게 차례를 지내야 할지 헛갈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에서는 추석을 맞아 차례 예절을 소개합니다.
지방 쓰는 법부터 절하는 방법까지, 차례 예절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방은 어떻게 쓰나요?”



‘지방’이란 무엇일까요? 조상의 이름과 사망 날짜가 적힌 신주를 대신해 임시로 기록한 종이를 지방이라고 합니다. 폭 6cm 정도, 길이 22cm 정도의 한지 또는 백지를 사용해요.

지방은 붓 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글자는 세로로 써야하며 왼쪽은 남자 조상, 오른쪽은 여자 조상을 쓰면 됩니다.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은 다음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어요.

“상차림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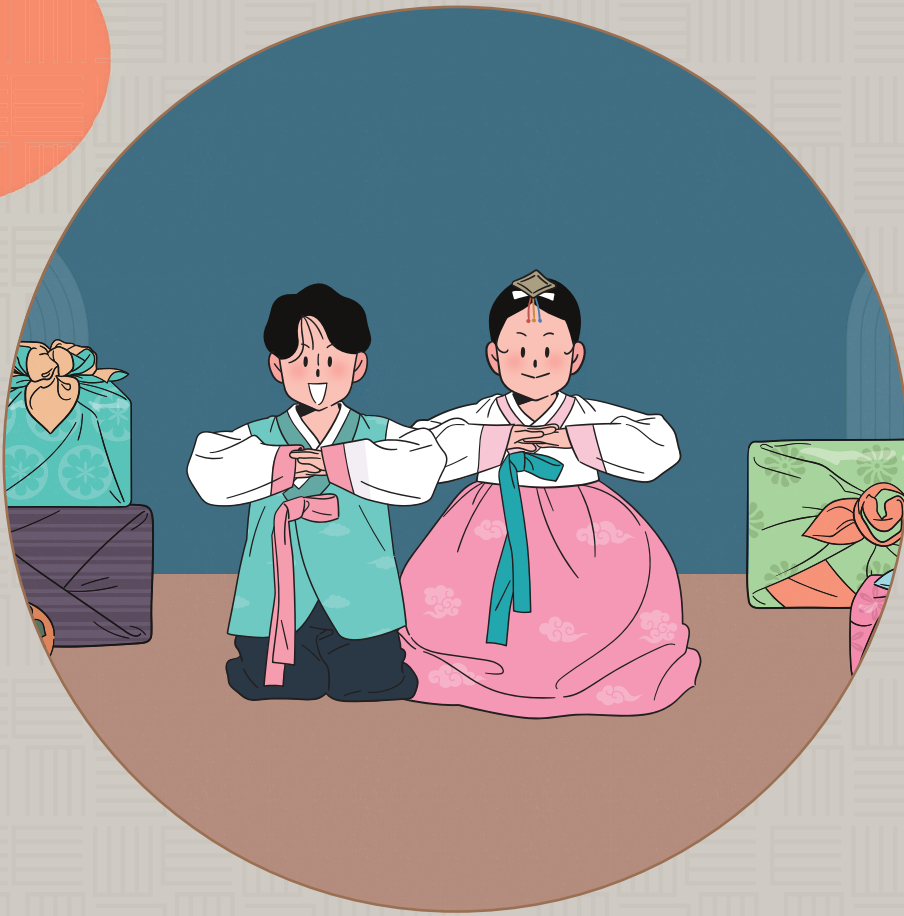


‘제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수는 제사 음식입니다. 각 지방마다 나오는 특산품이 달라 상차림은 지역과 집안마다 차이가 있어요. 제수를 놓는 위치 또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22년 성균관외례정립위원회가 마련한 차례상 표준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과 나물, 구이(적·찜), 김치(백김치 류), 과일, 술 등 6가지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올린다면 육류와 생선, 떡 정도를 추가할 수 있어요.

붉은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 과일은 서쪽에 놓으라는 흥동백서나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를 뜻하는 조율이시 등은 옛 문헌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별 및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가족들과 의논하여 다함께 추석 차례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절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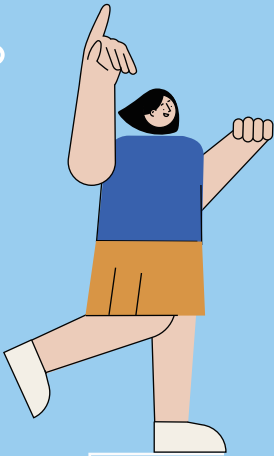
절하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 다른데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기억하면 쉬워요.

먼저,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오게 손을 모아 눈높이까지 올려요. 허리를 숙여 손으로 땅을 짚습니다. 왼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 무릎은 따라서 꿇어요.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상체를 숙인 뒤 절을 합니다. 몸을 일으킬 때는 처음과 역행으로, 오른 무릎을 먼저 일으켜 세워요. 일어서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리고 허리를 숙여 목례 후 마무리합니다.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오게 손을 모아 어깨 높이까지 올려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 무릎을 꿇으며 엉덩이를 내려앉아요. 그리고 상체를 숙여 절을 합니다. 몸을 일으킬 때는 처음과 역행으로 오른 무릎을 먼저 일으키며 일어납니다.

절은 두 번씩 하면 된답니다.

“너희의 일상이 궁금해!” 요즘 뭐해? 영상 공모전



교보교육재단이 ‘요즘 뭐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청소년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통해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일상 영상을 모집합니다!

- ✓ 요즘 나의 하루가 어떤지,
- ✓ 요즘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 ✓ 요즘 내가 속한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청소년의 요즘 일상과 문화를 보여주세요!

선정된 233명의 학생에게 푸짐한 상금 및 상품 수여!
수상작은 교보교육재단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1. 공모기간 2024년 9월 30일(월) 자정까지
2. 참가대상 전국의 청소년(만 24세 이하)
3. 공모주제 요즘 청소년의 하루, 장기자랑, 동아리를 보여주는 영상

4. 영상형식
 - ① 요즘 하루 / 요즘 장기자랑 / 요즘 동아리 中 주제 택1
 - ② 7분 이내의 자유로운 형식
 - ③ MP4 또는 AVI 포맷 / 용량 최대 800MB 이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가 서약서 확인

5. 선정혜택
 - 대상 3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애플워치
 - 최우수상 1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에어팟 프로
 - 우수상 20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 포토프린터
 - 참가상 200명: 교보문고 상품권 2만원(추첨을 통해 선발)
 - ※제세공과금 수상자 본인 부담
 -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브이로그 재질의 나의 하루”

- 요즘 하루: 청소년의 하루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

“슬릭백을 넘어 공중부양을 하는 것이 나의 장기”

- 요즘 장기자랑: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영상

“스우파처럼 댄스 배틀을 하는 우리 동아리”

- 요즘 동아리: 자신이 속한 동아리를 소개하는 영상

위와 같이 자신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 다큐 등 자유로운
형식의 ‘영상’ 제출



‘요즘 뭐해?’ 영상공모전
자세히 알아보기



“글로벌 리더십을 말하다!”

체.인.지 한일교류 현장 스케치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의 기간 동안
일본 도쿄에서 ‘2024 체인지 일본 리더십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교보교육재단의 리더십 프로그램인
‘체인지 아카데미’의 우수 수료 청소년 24명을 선발하여,
‘글로벌 체험, 인성, 지혜 습득’을 목표로
한일 청소년 학생 교류 및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1일차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단체사진

24명의 체인지 친구들이 아침 일찍부터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일본 도쿄로 출발했습니다!



센소지 등 일본 문화 탐방

첫째 날은 체인지 친구들과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센소지 등을 방문하며 일본의 역사와 분위기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유명한 우동과 스키야키를 먹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음식 문화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일 교류 전, 일본에 대해 조별로 조사한 내용 발표

체인지 친구들은 조별로 일본의 교육, 건축물, 음악, 음식 등 8가지 주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별 발표 내용을 들으며 리더십 탐방 장소인 일본의 역사와 사회,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일차

일본 야스다학원 중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첫 만남

둘째 날에는 도쿄 야스다학원 중고등학교로 이동해 일본 친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색했던 순간은 잠깐, 말이 잘 통하지 않음에도 이내 교실은 양국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함께 듣는 기업가정신 강의

특히 일본의 'iU 정보경영혁신전문대학' 전임 교원 아베 카와 히사히로 교수를 초청하여 기업가정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창의성'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일 청소년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일 친구들이 함께하는 일본 문화 탐방

한일 청소년이 함께 조를 이뤄 일본 대표 명소인 도쿄타워, 하라주쿠, 아키하바라,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도쿄대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글로벌 에티켓과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3일차

일본 친구들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 셀카

이틀 간 체인지 친구들과 야스다학원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언어와 국적의 장벽을 넘어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일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 단체사진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인지 친구들은 일본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보교육재단은 미래 세대들이 글로벌 참사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야스다학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일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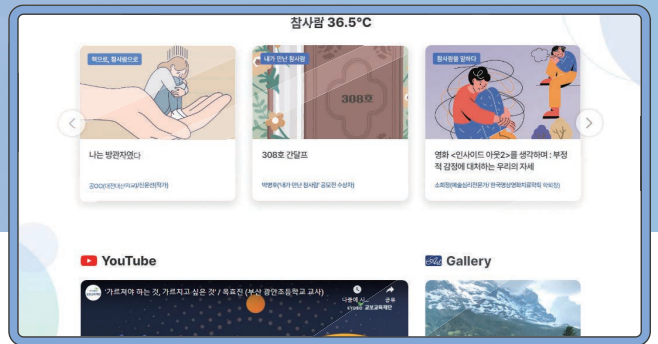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더 쉽게,
더 멋지게, 더 눈에 확 들어오게 개편되었어요!

1. 초기화면 개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첫 화면!
교보교육재단의 비전과 주요사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형 비 디자인



메인화면의 모든 영역을 이미지 중심으로 개편하여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3. 뉴스룸 신설



사업 공모와 행사현장 스케치, 교육 정보 등 재단소식을
이 한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



월간 매거진과, 유튜브, 그리고 새롭게 운영되는 아트갤러리까지,
글-영상-그림으로 더욱 풍요로운 재단 콘텐츠를 한 눈에!

교보교육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Big3 이벤트! 럭키박스 추첨부터 SNS 소문내기,
그리고 개편내용 리뷰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총 615명을 선정하여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오셔서 달라진 홈페이지도 구경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나누어주세요.

이벤트 ①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설레는 시간이 찾아온다!”

럭키박스 추첨 이벤트



참여방법

럭키박스 열어보기 클릭
→ 3개의 박스 중 한 개를 선택
→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참여기간

9월 18일(수) 자정까지
* 이벤트 종료일까지
하루에 한 번 응모 가능

선정혜택

이벤트 종료일까지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증정



이벤트 ②

“내가 이 구역 소문왕이야!”

SNS 소문내기

참여방법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새롭게 개편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홈페이지 주소를 개인 SNS에 업데이트
→ 축하 메시지와 함께 업로드한 SNS의 URL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남기기

참여기간

9월 18일(수) 자정까지

선정혜택

-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는 설빙 2만원 상품권 증정
- 최다 SNS 공유자 5명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 10만원 증정



이벤트 ③

“리뷰남기고 북캉스 가자!”

개편내용 리뷰하기

참여방법

주요 개편 내용 확인
→ 가장 좋았던 개편 내용 투표와 함께 기타의견과 바라는 점 등을 300자 내외로 작성하여 응모

참여기간

9월 18일(수) 자정까지

선정혜택

심사 및 추첨을 통해 총 110명에게 상품 증정

- 1등(1명) 교보문고 10만원 상품권
- 2등(2명) 교보문고 5만원 상품권
- 3등(7명) 교보문고 3만원 상품권
- 참가상(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이벤트 Big3
자세히 알아보기

참사람 36.5℃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가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